

‘선교와 고난’에 대한 선교 신학적 이해

I. 들어가는 말

선교 역사가들은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의 “이교도 개종 방법을 모색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An) Enquiry into the obligations of christians to use means for the conversion of the heathens] 논문이 발표된 때¹⁾인 1792년을 개신교 선교의 시작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때를 기준으로 200여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복음의 불모지에서 고난을 감내하며 헌신해 왔다. 그런데 5G 시대를 직면하고 있는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여전히 선교적인 삶은 고난 그 자체라는 말에 동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가 ‘선교와 고난’을 주제로 한 논문 집필을 부탁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선교와 고난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단어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학술 논문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선교학계나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 의해 연구된 학술 논문은 실제로 그리 많지 않았다. 아마도 당연한 명제가 되다 보니 연구 주제가 되지 못했으리라 추측된다.

따라서 필자가 선교 현장에서 경험해 오고 있는 고난의 사례와 타문화권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난을 바탕으로 선교와 고난이라는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선교와 고난은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둘째, 고난이 선교 신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하는가, 셋째, 고난에 직면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적 응답으로써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넷째, 선교적 고난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책무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가를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II. 연구 범위, 용어 정리 및 선행연구

1. 연구 범위 설정 및 한계성 지정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선교적 고난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선교사 자신인가? 그들의 가정인가? 그들을 후원하는 후원교회인가? 아니면 선교 현장의 context인가?

선교적 고난은 자신 혹은 타인, 환경, 문화, 가치관 등에 의해 형성된 고난,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난 등에 의해 발생된다.

이처럼 ‘선교와 고난’을 주제로 한 연구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범위를 설정하지 않으면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선교지 환경의 특수성은 수많은

1) 스티븐 닐(Stephen Neil)은 그의 책 『기독교 선교사』에서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 1761-1834)가 개신교 선교의 비조(鼻祖)로 일컬어져 왔으며 그가 시작한 사업을 근대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선교로 이야기 되어 왔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한다. 캐리는 그 앞서 활약한 여러 개척자들의 후예로서 그 고귀한 대열에 계승한 것이며 그 자신도 이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Stephen Neil,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홍치모, 이만규 역, 『기독교 선교사』 (서울: 성광문화사, 1993), 342.]

약자와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필자는 본 논문의 연구 범위를 타 문화권에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의 삶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2. 용어 정리

1) 고난과 고통

본 논문에서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용어 정의를 분명히 하되, 이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두 용어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고난에 대한 국어사전적 의미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²⁾이다. 고통은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³⁾으로 정의되어 있다. 국어사전적 의미로 두 단어를 함께 정의하면, ‘고난과 고통은 괴로움과 어려움이 몸이나 마음의 아픔으로 나타난 상태’이다. 의학 분야에서 고통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신학 분야에서는 고난이라는 용어가 좀 더 많이 사용된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고난과 고통은 함께 혼용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고난과 고통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⁴⁾

그러면 성경에서 이해하는 고난과 고통⁵⁾의 의미는 무엇인가? 특별히 다양성과 복합성 차원에서 고난이 주는 선교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 정의는 V장의 선교적 고난을 선교 신학적으로 해석하는데 의미가 있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 다음과 같다. ①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②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한 감정이입(移入), ③다른 사람의 형벌에 대한 대속적인 담당, ④진정한 회개와 신앙, ⑤보다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경고, ⑥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하는 훈련 등이다. 기독교 대백과 사전에서는 고난을 여섯 가지, “①심판으로 오는 고난(judgmental suffering)⁶⁾ ②동정에서 오는 고난(empathic suffering)⁷⁾ ③대속적 고난(vicarious suffering)⁸⁾ ④증거로서의 고난(testimonial suffering)⁹⁾ ⑤예방적 고난(preventative suffering)¹⁰⁾ ⑥교육적 고난(educational suffering)¹¹⁾”¹²⁾ 유형으로 구분한다.

2) 선교적 고난

2)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A%B3%A0%EB%82%9C&range=all> (2019년 10월 15일 검색)

3)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A%B3%A0%ED%86%B5&range=all> (2019년 10월 15일 검색)

4) 박영식, 『신정론의 물음과 신학적 답변 “고난과 하나님의 전능”』 (서울: 동연, 2012), 20.

5) 고난과 고뇌(suffering and anguish)의 개념을 담고 있는 성경의 용어들은…고난을 당한다, 고난을 견딘다, 고난, 고통, 괴로움, 아픔, 아프게 한다, 환란을 당한다, 억압을 받는다, 괴롭힌다, 허용한다, 떠나다 또는 홀로 남다 등의 뜻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고난은 정신적 고통을 말하며 이 용어에 육체적 고통이란 뜻이 포함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고뇌는 격렬한 고통을 말한다. [‘고난과 고뇌’ 기독교대백과사전, 제1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7), 776-779.]

6) 심판으로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자의적이고도 불신적인 불복종에서 기인된 것이었다. …또한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 역행하는 죄에 대해서도 주어진다.

7) 우리는 상상과 관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 속으로 완전히 몰입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고난당하는 자의 깊이 들어갈 때 그에 대한 동정이 자신의 고난으로 체험된다.

8) 예수 그리스도는 결정적으로 사탄을 패배시키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셨고 그 결과로 고난의 가장 깊은 원인이 제거되어졌다. 예수는 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살아나야 하셨다.”

9) 내적인 고난은 그리스도의 삶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데서 비롯된다.

10)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더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육체적인 고난을 허용하셨다.

11) 최상의 삶이란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최선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12) ‘고난과 고뇌’ 『기독교 대백과사전』, 776-779.

선교적 고난은 복음 전파를 위해 수반되는 고난과 고통의 총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은 소명을 받고 파송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쉽지 않은 새로운 삶의 여정을 밟게 된다. 선교사가 복음 전파를 위해 사역을 감당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선교사 본인, 가족 구성원, 관계성, 사역지 상황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일부 선교사 가운데는 선교적 책무의 불이행, 개인의 영웅적 행위 등에 의해 선교 사역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갈등과 어려움을 마치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으로 미화하는 이들이 있다. 예를 들면,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기 위해 물가가 높은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후원비가 적어서 고생하는 선교사, 명예욕 때문에 제국주의 선교 사역을 감행하면서 현지인과 갈등을 겪는 선교사, 정기적인 재정 보고나 선교 보고 없이 불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후원교회로부터 후원비가 삭감되어 후원교회와 갈등 구조 가운데 있는 선교사, 선교사 간의 갈등 뿐 아니라 현지인과의 갈등을 초래하는 행동으로 인해 고립과 상처를 경험하는 선교사, 가정 사역과 선교 사역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사역만을 우선시함으로써 가족과 불화를 겪는 선교사 등과 같이 불순한 의도에 의해 초래되는 고난은 선교적 고난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선교적 고난을 ‘하나님의 선교라는 본질에 충실히 응답하고자 할 때 선교 현장에서 직면하는 고난’으로 정의한다. 이 선교적 고난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의 삶과 사역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

3. 선행연구

선교사 중도 탈락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자녀교육, 문화 적응, 동역자간의 갈등, 현지 사역자와의 갈등, 부부관계, 건강 상실, 과도한 스트레스, 후원교회와의 갈등, 영적 고갈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의 기저에는 선교사에게 다가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고통과 고난의 상태로 심화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내적 요인을 찾아 분석하고 객관화 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그래서 필자는 본 논문에서도 그 영역에 대해서는 몇몇 선행 연구들에 의존하고자 한다.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고통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개인, 사회, 역사적 차원의 기초가 되는 고통을 받는 이유와 그 목적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고통이 지니는 개인적, 역사적, 사회적 차원을 넘어 고통이 발생하는 최종적 근원과 이유, 그 목적을 묻게 될 때 고통에 대한 형이상학적 차원이 전개된다. …인간은 개별적인 고통과 고난의 측면을 넘어 고통과 고난의 본질을 물으며, 그 시원적인 출처가 무엇인지를 묻게 된다.¹³⁾

인간이 직면하는 고통과 고난의 보편적인 의미와 본질 뿐 아니라 고통과 죄, 그리고 악의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의 답을 주는 영역이 바로 신정론(Theodicy)이다. 다시 말하면, 신정론은 신의 정당성을 변호하며, 신의 다스림과 섭리를 옹호하는 신학이다. 그래서 흔히 변신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인간의 고통과 악의 문제에 대한 신의 존재와 신의 속성에 대한 변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정론의 관점에서 ‘고통, 고난, 선교’를 키워드로 하여 연구된 선행연구로 「선교신학」 Vol 46.에 게재된 김남석의 “고통에 대한 선교신학적 접근”이 있다. 이 논문¹⁴⁾은 고통

13) 박영식, op, cit, 20.

14) 김남석, “고통에 대한 선교신학적 접근” 「선교신학」 Vol 46. (2017): 15-46.

의 해석학을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와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에게서 나타난 ‘타자의 고통’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타자로 전락하여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선교신학 관점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연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통과 고난과 같은 신정론의 중심 주제를 선교신학과 연결했다는 관점에서 이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전통적 신정론과 현대적 신정론으로 구분하여, 전통적 신정론을 인간의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 선교의 흐름으로, 현대적 신정론을 에큐메니칼 선교의 통전적인 인간 구원을 추구하는 흐름으로 연결의 고리를 찾은 것도 의미가 있다. 이 논문은 필자가 고난과 선교의 기본적인 이해를 갖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주변 상황에 직면하면서 발생하는 고통에 대한 선교 신학적 이해를 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문화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직면한 고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은 한계성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타문화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고난을 연구함으로써 그 한계성을 넘어가고자 한다.

III. 내적 요인에 의한 선교적 고난에 대한 이해

필자는 “고난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중심 요소로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¹⁵⁾라고 말한 선퀴스트(Scott Sunquist)의 주장에 동의한다.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겪는 선교적 고난의 내적 요인은 선교사 자신의 내면세계, 선교사 가정 안에서 겪는 관계성의 문제, 선교 공동체 안에서 겪는 갈등, 선교사 간의 갈등, 후원교회와의 갈등, 선교사와 선교단체 간의 갈등과 긴장으로 인해 오는 고통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겪는 내면적 상처와 고통을 고든 맥도날드(Gordon Macdonald)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가 한두 번은 함몰 웅덩이와 같이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피곤으로 무감각해진 정서, 처절한 실패감,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목표에 대한 쓰디쓴 환멸감을 느낄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감지했을 것이다. 삶 전체가 온통 끝없는 심연으로 빠져 들어갈 것 같은 붕괴 직전의 위기를 느끼게 된다.¹⁶⁾

타 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겪는 내적 위기는 위의 인용문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선교사의 자존감 상실과 무력감, 하나님을 향한 죄책감, 반복적인 탈진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영적 무감각 상태 등 마치 함몰된 웅덩이에 아무 저항 없이 빠져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허탈해 하는 선교사가 겪는 고난과 같은 유형은 특정 수치로 표현될 수 없다. 타 문화권 선교 현장에서 겪는 한국 선교사들의 내적 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서구 선교사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아시아인들 특히 한국인들은 우울증을 심리적 문제나 정신적 문제로 보기보다는 육체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로 본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도 신체적 건강 문제로만 국한해 이야기하고 가족의 일이나 사역 등을 우선으로 여긴다.¹⁷⁾

15) Sunquist, Scott, *Understanding Christian Mission*, 이용원, 정승현 역, 『기독교선교의 이해-고난과 영광에의 참여』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5), 20.

16) Gordon Macdonald, *Ordering Your Private World*, 홍화옥 역,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서울: Ivp, 2003), 25-26.

또한 한국 선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선교 현장에서 내적 요인으로 인한 고난을 받을 때 서구 선교사들과 달리 그 고난을 스스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문화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더 큰 어려움과 고난에 봉착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한국 선교사들은 스트레스를 내면화하는 강한 감정으로 대처해 나가려는 경향이 있다.…선교사들 대부분이 의지와 결단력이 약한 의지박약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것이므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심리적 문제나 정서 장애를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¹⁸⁾

이와 같은 내적 요인으로 인한 선교적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셀리에(H. Selye)의 이론에 의하면 선교사가 내적 요인으로 인한 고난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

오래 지속되고 있는 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신체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설명해 주는 3단계의 일반적응 증후군(General Adaptation Syndrome, GAS)을 밝혀냈다. 즉, 스트레스를 3단계 (1)경보-놀람반응(alarm)→ (2)저항-적응반응(resistance)→ (3)탈진-소모와 도피반응(exhaustion)으로 나누었다. 그는 심각하고 만성적 스트레스는 적응과정에서 겪는 에너지 소모로 인해 신체기관에 손상을 입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다.¹⁹⁾

셀리에의 주장처럼, 선교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타나는 내적 요인의 선교적 고난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한 ‘불타지 않는 공적’에 대한 선교적 이해가 필요하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고전 3:12-15)

여기에서 불타지 않는 공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은 선교적 고난에 대한 바른 해석의 기준을 제공해 준다. 불타지 않는 공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이 쉽게 범하는 불타는 공적을 예로 들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즉, 선교지에서 다른 선교사에 비해 더 많은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고, 그 상을 받기 위해 현재의 삶을 더 큰 고난의 여정으로 몰아가려는 사고, 선교적 고난의 강도가 클수록 천국이 더욱 가까울 수 있다는 사고 등을 말한다. 의지할 가족과 친척, 친구도 없는 선교 현장에서 외롭게 사역하는 선교사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내적 요인으로 인한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것을 참고 묵묵히 견디기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능동적으로 싸워서 고난을 헤쳐 나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선교 사

17) Jonathan J. Bonk 외 37인, *Family Accountability in Missions*, 두란노, 『선교사 가정에 대한 책무』(서울: 두란노, 2013), 271-272.

18) Ibid., 272-273.

19) Hans Selye, *Stress Without Distress*, New York: McGraw-Hill, 1956), 김만풍 역, 『현대 기독교 상담시리즈 9-스트레스와 안정』, (서울: 두란노, 1997). 13.

역은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야만 하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선교는 고난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현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특권을 누림에 감사하며 즐겁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것인가? 선교사가 겪는 수많은 고난은 불타는 공적에 해당하는 것인가?

선교사가 직면하는 내적 요인이 불타지 않는 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과 선교의 중심이 된다는 든든한 믿음 위에서 세워가는 공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 28-29절에서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에 대한 이해를 잘 엿볼 수 있다.

IV. 외적 요인에 의한 선교적 고난에 대한 이해

선교 역사에서 외적 요인으로 인한 고난의 사례를 열거하려면 너무 많아서 일일이 기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고난의 외적 요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면 당연히 네로 황제의 박해라고 할 수 있다. 로마제국의 제 5대 황제인 네로(Nero, 재위 54-68)는 기독교를 박해한 최초의 로마 황제로 알려져 있다. “네로는 로마인들에게 ‘사악한 미신’을 믿는다고 미움을 받고 있던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탄압했다. 네로의 기독교 박해로 베드로와 바울 등의 성직자들이 순교하는 등 기독교는 큰 타격을 입었고, 네로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폭군으로 불리게 되었다.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되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다”²⁰⁾고 전해진다. 유세비우스(Eusebius)는 『교회사』에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네로는 통치권이 확립되었을 때, 나쁜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우주의 하나님을 믿는 세력에 대적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의 비이성적 광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이때에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되었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기사는 오늘날까지 베드로와 바울의 이름이 로마시의 공동묘지에 남아 있다는 사실에 의해 입증된다.²¹⁾

제 2차 박해는 도미시안(Domitian, 81-96) 통치 시기로서,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갇힌 때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안디옥 교회의 감독인 이그나티우스(Ignatius)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갑(Polycarp)이 순교하였다.²²⁾ 초대 교부 중의 한 사람인 폴리갑은 주님이 한 번도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고난의 자리인 화형의 모습으로 순교하였다.

산 채로 불에 태워서 죽이는 화형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가해졌던 주요한 형벌 가운데 하나였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는 2세기 중반 스미르나(Smyrna) 주교였던 폴리카르푸스(Polycarpus, 69-155?)의 순교에 대한 기록이 전해진다.²³⁾…그들은 폴리카르푸스에게 신인 황제

20) 조인형, 『로마의 카타콤(기독교 박해와 승리의 역사)』 (서울: 하늘양식, 2013), 73.

21) Ibid., 73-74.

22) Herbert J. Kane, *A Concise History of the Christian World Mission*, 박광철 역, 『기독교세계 선교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50.

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신을 부정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물러가도록 설득하라고 강요했다. 폴리카르푸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오랫동안 그분을 섬겨 왔는데 그 동안 그 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주님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²⁴⁾…핍박에 사용된 방법들이 너무나 잔인해서 그 끔찍한 모습에 구경꾼들은 소름이 끼쳤으며 핍박당하는 사람들의 용감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떤 순교자들은 이미 상처가 난 발로 가시나 못이나 날카로운 조개껍질 등이 박혀있는 곳을 걸어갔고, 어떤 사람들은 근육과 핏줄이 터질 때까지 채찍질을 당했으며, 가장 괴로운 고통을 치룬 뒤에 그들은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²⁵⁾

이러한 배경 가운데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터툴리안(Tertullianus) 교부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 성장의 원천²⁶⁾’이라고 말했다. 즉,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생명을 탄생시키고 자라서 교회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순교라는 크나큰 희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기경 발터 카스퍼(Walter Kasper)도 “순교자들에 대한 기억은 피로 쓰인 그리스도교적 진리의 문서고이다. 그 기억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말해준다.…그 기억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폐쇄적 정체성도, 종파적으로 담을 쌓는 정체성도 아닌 하느님을 위한, 그리고 타인을 위한 존재 안에 내재하는 정체성임을 되새겨 준다.”²⁷⁾고 말했다. 또한 톰 화이트(Tom White)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서문에서 순교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란 단지 자신의 믿음을 위해 죽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정의 때문에 우리는 순교의 참된 중요성과 그 깊이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St. Augustine)은 “그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진정한 순교자를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²⁸⁾

성경은 고통, 고난, 순교를 동반한 교회의 역사, 특별히 초대교회 역사 자체가 사도들의 순교에 의해서 세워졌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당한 고난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후 11: 23-27)

23) 조인형, op. cit, 50-51.

24) Ibid., 51.

25) Marie G. King, *Fox's Book of Martyrs*, 양은순 역, 『기독교 순교사화』,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7), 19.

26) 전호진, 『기독교 박해시대』 (서울: 선교햇불, 2018), 166.

27) 발터 카스퍼 추기경 외, 『순교의 신학적 고찰 “순교자-진리와 자유의 증인: 순교 신학에 관한 고찰”』 (서울: 도서출판 형제애, 2013), 252.

28) Richard Wurmbrand, *Tortured for Christ*, 조주황 역,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서울: 서울유에스에이, 2008), 10.

이처럼 선교와 고난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초대교회 뿐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외적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고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종류 또한 다양하다. 이슬람 지역이나 창의적 접근 지역,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겪는 영적 압박감과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감,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겪는 치안의 불안정으로 인한 신변 위협에 대한 두려움 등은 외적 요인에 의해 선교사들이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에 해당된다. 선교사 가정의 타종교권 국가에서 종교적 박해로 말미암아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지만, 의외로 선교지에 정착하는 순간부터 맞이하는 자녀교육 문제, 낙후된 사회 기반시설, 열악한 병원 등의 환경적인 상황이 장기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면서 결국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역을 중도에 그만 두는 선교사도 적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현대 선교, 특별히 한국 선교에 있어서 외적 요인과 관련된 선교적 고난 가운데 생명을 잃는 위기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상황과 선교적 고난이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에 대한 분명한 선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선교지에서 단기 선교팀원이 주어진 선교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 사고를 당했는데, 그 현지 국가가 우리 정부에서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한 곳이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우리는 아픔을 당한 유가족의 고난을 선교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이르게 된다. 아울러 이 사고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거나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신앙의 배교를 강요당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를 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선교지를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 하나로 그를 순교자의 반열에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학문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V. 선교적 고난에 대한 선교 신학적 이해 및 응답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인 폴 투르니에(Paul Tournier)는 그의 책 『창조적 고통』에서 “우리는 고통 자체가 창조적일 수 없을지 모르지만 고통 없이는 창조적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 고통 없이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다. 결국 모든 상실과 고통은 창조성을 위한 기회인 것이다.”²⁹⁾라고 말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선교적 고난에 대한 선교 신학적 이해로 접근해 보자 한다.

1. 고난에 대한 선교적 이해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해 가고자 애쓰는 선교사들이 직면하는 고민과 갈등은 다음과 같다. 그들의 자녀가 타 종교권에 물들지 않도록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고자 할 때 뒤따르는 심리적 긴장감, 복음 전도를 위한 영적 전투, 현지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수반되는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만일 선교사가 타 문화권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위기를 맞이한다면, 사역을 접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책인가? 아니면 그 고난을 넘어갈 때까지 선교지에

29) Paul Tournier, *Creative suffering*, 김기복 역, 『창조적 고통』 (서울: 전광사, 1986), 131.

머물며 인내하고 버텨야 하는가? 1857년 12월 4일, 데이비드 리빙스턴(David Livingstone, 1813-1873)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강연한 핵심 내용에서 고난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No Sacrifice, But a Privilege)이었다'라고 말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지명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신 데에 항상 기뻐해 왔습니다. 제가 생애 대부분을 아프리카에서 보냈기에, 사람들은 제가 희생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진 빛,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빛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을 갚아 드린 것뿐인데, 어찌 이것을 희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이것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특권이었다고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 질병, 고통, 위협으로 인해…일시적으로 간혹 주춤하거나 정신적으로 흔들리거나 영적으로 약해지기는 했지만, 저는 결코 조금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³⁰⁾

대부분의 성도들이 선교사들에게 하는 말이 있다. “선교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선교사님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선교지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육체적, 심리적 고난을 받는 선교사가 안쓰럽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갖는 이러한 생각이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간혹 발견된다. 그들은 “만일 내가 선교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가족이 이런 고생은 안 하고 한국에서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내가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희생당한 거야.”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을 선교 신학적, 존재론적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가시적으로 보이는 동일한 상황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쉽게 설명한다면, 한국에 있는 회사에 다니던 비 기독교인이 오지로 파견되는 순간부터 고난을 겪게 되었다고 하자. 그 사람과 오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겪는 고난의 가치는 동일한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보다 본질적인 차원으로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선교사가 소명을 받고 선교지로 파송되면, 선교사가 되기 전에 누리고 있던 학력, 지위, 명예 등을 버리고 낙후되어 살아가기 힘든 곳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가 선교사에게 잠재적으로 선교지는 고난이 깃든 곳으로 여기게 만든다. 그러나 선교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와 같은 인식의 한계는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종(δουλος)이며, 선한 청지기이다. 종은 말 그대로 그 위치에서 더 내려갈 곳이 없는 자이다. 더구나 선교사는 제 3의 부르심³¹⁾을 받은 사역자이기에 낮은 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 속한 자이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선교사가 선교지로 가는 것은 유배를 가는 것과 같은 처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르심의 개념 차원에서 이해하면 선교사는 고난의 자리가 아닌 영광의 자리로 높여져 옮겨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교사의 자리는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여기시고, 충성되지 않은 자를 충성 되어 여기셔서 맡기신 영광의 자리인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선교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선교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영광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학식이 뛰어나고 은 직업을 가졌던 분이 선교사가 되면서 ‘내려 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의미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선교사는 비천한 저희를 영광의 자리로 올리시기 위해 부르신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귀한 선교 사역에 쓰임 받는 한국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저를 비롯한 선교사님들은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화답송을 주님께 드리면 겠

30) Ralph D. Winter and Steven C. Hawthorne,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정옥배 외 3인 역, 『퍼스펙티브스1』 (서울: 예수전도단, 2010), 667-668.

31) 제 1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에게로의 부르심, 제 2의 부르심은 목회자 혹은 사도로서의 부르심이다.

습니다. 물론 사역지의 상황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지는 명에는 가볍고 쉽습니다. 오늘도 선교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대하며,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³²⁾

본래 가진 것이 없기에 아무 것도 줄 것이 없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교지에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부터,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선교지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로부터 배우고 즐기는 삶을 통해 풍성한 영적 소유자로 거듭나는 영광을 누리는 삶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헨리 나우웬(Henri J. M. Nouwen)도 고난 받는 종(Suffering servant)을 일컬어 “그 종이 겪는 고난은 기쁨의 자리요, 고난의 영광이 내재된 자리이다.”라고 말했다. 그러기에 “모두 선교사이면 모두 선교사가 아니다”³³⁾라는 주장처럼, 선교사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인식을 평생 되새기면서 선교적 고난을 잘 이해한다면, 고난의 장소라고 여겼던 선교지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역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교적 고난에 대한 선교 신학적 이해

선교와 고난에 대한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본 논문 II장, III장, IV장에서는 현상학적인 관점과 존재론적인 관점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했고, V장 1.에서도 ‘고난에 대한 선교적 이해’를 살펴보았다. 필자는 이 연구의 바탕 위에서 본 논지의 목적에 해당하는 선교적 고난에 대한 선교 신학적 해석과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필자는 선교 신학적 이해의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난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랄프 문캐스터(Ralph O. Muncaster)의 고난에 대한 의미에서 먼저 찾아본다.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실 수 있다. ①유익을 위한 도구로(요11:49-52) ②악에서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③가르침의 도구로(히12:7) ④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도구로(약1:2-7) ⑤당신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창15:13-14) ⑥당신의 인격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고후7:9; 벰전4:19)³⁴⁾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우는 도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문캐스터가 이해한 긍정의 관점 위에 마틴 루터 킹 Jr.(Martin Luther King Jr.)은 고난이 영생으로 나아가는 쉽의 자리이며, 열린 문이고, 소망의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의 근원으로 보았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기독교의 확증으로부터 당신이 위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생을 마치는 위대한 선고의 마침표가 아니라 보다 더 고귀한 의미를 부여하는 쉼표입니다. 죽음은 인간을 무의미한 상태로 이끄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열린 문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담대한 믿음, 굽히지 않는 생각이 시험을 겪을 때 당

32) 장은경. “섬김의 리더십으로 동반자 선교를 추구해 가는 선교 동역자(Mission-Coworker)” 「선교타임즈」 2017. 4월. 17.

33) 스티븐 닐(Stephen Neill)은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Stephen Neill, *Creative Tension*, London: Edinburgh House Press, 1959. 81.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김병길·장훈태 공역, 『변화하고 있는 선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751에서 재인용]

34) Ralph O. Muncaster, *Why Dose God Allow Suffering?*, 이근형 역,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실까?』 (서울: 쿤란출판사, 2005),98.

신을 지탱하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³⁵⁾

고난에 대한 선교 신학적 이해는 고난의 신학적 이해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 하기 위한 힘의 근원이며, 죽음을 넘어서 생명의 연속선상에서 세상을 이해하게 한다. 아래의 인용문은 우리로 하여금 선교와 고난의 상관관계가 갖는 의미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해 준다.

아이티 지진에서 살아남은 한 젊은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때, 아이티의 주교 에릭 투쟁(Eric Toussaint)이 파괴된 성당 근처에 서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때, 「뉴욕커」의 기자이며 하버드 대학교의 문학 평론가 제임스 우드(James Wood)는 이 말에 공감하면서도 결국에는 신에 대한 이런 식의 언급을 경멸했다.… 우드는 이런 말이 무기력한 신비와 낙관적인 절망이라는 모순적인 울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논평가 로버트 라이스(Robert Reyes)는 더욱 경멸적인 태도를 보였다. 라이스는 이런 말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데다 종교가 고무시키는 광기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아이티 지진의 생존자들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³⁶⁾…아이티 지진의 생존자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않고(사실 그분의 손안도 그리 안전하지 않다) 이들의 강력한 이웃인 미국의 손안에 있다. 이들의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지 않고 이들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음식과 물, 건축 자재, 의료품을 싣고 오는 미국의 배와 비행기에 달려 있다.…하지만 우드와 라이스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는 무관한 철학과 이신론으로부터 온 신 개념에 갇혀 있다.…아이티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말한 것이라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라면 고통 중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돌봄을 언급하는 것은 합당하다.³⁷⁾

삶의 자리(Sizen im Leben)에서 지진 재해를 직접 겪은 후 고백되었던 ‘고난에 대한 신앙고백’과 일평생 큰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평탄한 삶을 살아온 이의 고난에 대한 시각은 큰 차이가 존재한다. 바로 우드와 라이스의 상황이해에 따른 타자의 고난에 대한 고백의 해석이 그 큰 예이다. 이처럼 고난에 대한 이해, 더 나아가 선교적 고난에 대한 해석은 선교 신학적 관점에서 늘 간극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선교적 고난은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퀴스트는 “선교사로서의 실존은 우리에게 변화하는 삶과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것을 더욱 자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³⁸⁾고 말하고 있다. 고난과 연관성을 갖고 해석하는 단어들을 열거해 보면, ‘고난과 소망’, ‘고난과 축복’, ‘고난과 교회’, ‘고난과 힐링’, ‘고난과 죽음’, ‘고난과 부활’, ‘고난과 그리스도’ 등을 들 수 있다. 선퀴스트는 ‘고난과 영광’이라는 준거의 틀 위에서 그의 책 『기독교 선교의 이해: 고난과 영광에의 참여』를 서술했다. 그는 고난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고난을 이해한 것이다.

선교적 고난에 대한 선교 신학적 이해를 위해서는 창조적 긴장 속에서 선교와 고난을 이해해야 한다. 1989년 미국 샌 안토니오(San Antonio)에서 열린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

35) Susan Bergman, *Martyrs- “Contemporary Writers on Modern Lives of Faith”*,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96), 19.

36) Thomas G. Long, *What Shall We Say? Evil, Suffering, and Crisis of Faith*, 장혜영 역, 『고통과 씨름하다. “악, 고난, 신앙의 위기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145.

37) Ibid., 146.

38) Sunquist, Scott, op, cit, 25.

(CWME)³⁹⁾ 대회는 선교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긴장이 있다고 보았다. 이 대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구는 ‘창조적 긴장’이었으며, 대회의 주제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르는 선교”였다.⁴⁰⁾

이 대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흐름은 이 모임의 보편성(catholicity)의 정신과 복음의 충만함에 대한 관심이었다. 즉 창조적인 긴장 안에서, 영적이고 물질적인 필요, 기도와 행동, 전도와 사회적 책임, 대화와 복음증거, 능력과 연약함, 지역과 보편을 붙잡는 것이었다.⁴¹⁾

선교와 고난 사이에는 창조적인 긴장이 존재한다. 이 긴장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충실한 삶 가운데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선교지의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당면한 내면적, 외면적 사이에서도 창조적인 긴장이 존재한다.

우리는 고뇌와 고통의 소리를 많이 들었다. 즉,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 차별받는 여성의 목소리, …죄 없이 몸과 마음과 정신으로 고통당하는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원주민들의 목소리, 난민과 유민들의 목소리,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삶의 의미에 목마른 사람들의 목소리…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⁴²⁾

데이비드 보쉬(David J. Bosch)가 언급한 13번째 패러다임인 ‘소망의 활동으로서의 선교’에서 그는 선교와 고난이 창조적인 긴장 가운데서 오늘의 선교가 존재해야 하며, 구원과 미래의 소망의 복음을 증거 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한편으로 궁극적이고 완전한 것에 대한 소망과 또 다른 한편 근접한 것에 대한 소망을 구분한다. 우리는 고통을 가지고 그리고 동시에 현실주의를 가지고 이 구분을 저항한다. 우리는 우리의 선교가 교회 자체와 같이 다음 시대가 아닌, 단지 이 시대에 속한 것을 안다. 우리는 소망 속에서 이 선교를 수행한다.⁴³⁾

창조적인 긴장 속에서의 고난은 긍정의 차원에서 선교사의 리더십 형성 및 지도력 개발에도 영향을 끼친다. 클린턴(Robert J. Clinton)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라는 것이 지도자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말했다.

손실의 위협(목숨, 재산, 삶의 방법), 갈등, 변화의 요구, 질병, 핍박, 하나님의 성품 나타남이 절박하게 필요할 경우, 또한 하나님의 인도나 특별한 간섭이 필요한 상황 등은 위기가 깊어지는 요인이다. …위기는 또한 지도자로 하여금 가장 어려운 시기, 삶의 중요한 경험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예비해 온 해결책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친다.⁴⁴⁾

39) Commission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

40) Kenneth R. Ross 외 3인, *Ecumenical Missiology -Changing Landscapes and New Conceptions of Mission*, 한국 에큐메니칼학회 역, 『에큐메니칼 선교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8), 200.

41) Ibid., 202.

42) Ibid., 203.

43) David J. Bosch, op, cit, 749.

44) Robert J. Clinton, *The Making of a Leader*, 이순정 역, 『영적 지도자 만들기』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3), 154-155.

그는 지도력 개발이 평생 동안 이뤄지는데, 과정변수, 시간변수, 반응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세 가지 차원, 즉 영적 차원, 사역적 차원, 전략적 차원에서 개발이 된다고 보았다. 특별히 본 논지의 키워드 중의 하나인 고난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필자는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고난에 대한 리더십 관점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위기와 밀접한 관계성을 갖고 있는 고난의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선교사의 지도력에 고난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선퀴스트는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고난을 통해 보여주시는 사랑에 우리가 참여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난의 사랑’(suffering love)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선교에 관한 표현으로 특별하다. …기독교 신학 특히 선교신학은 성경말씀과 기독교 전통 안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해야만 한다. 이런 접근 방법이라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보여주시는 사랑의 중요성을 바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⁴⁵⁾라고 말한다. 몰트만(Jürgen Moltmann)도 이와 같은 이해 속에서 이 주제에 관해서 논한다. 그는 하나님과 고난의 연관성을 통찰하여 형이상학적으로 사유된 ‘고통당할 수 없는 신’을 비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함께 고통당하는 아버지의 고난을 삼위일체론적으로 정초시켰음⁴⁶⁾을 보게 된다.

VI. 선교적 고난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응답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인 선교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고난의 내적, 외적 요인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러한 위기감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더 많은 숫자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여전히 주력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고난을 감내하고 있는 사역 현장에 대한 공감능력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아래 인용문은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선교사의 삶에 대해 우리가 단순히 희생과 헌신만을 기대한다면 선교사가 현장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그가 어떻게 하든 그 자리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살아가기를 기대한다. 선교사가 외로이 겪는 고통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필연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헌신으로 간주된다.⁴⁷⁾

선교사라면 당연히 고난의 삶을 감당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선교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단순한 도식적인 믿음은 선교사를 더 큰 어려움의 자리로 몰아갈 뿐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선교와 고난에 대한 전통적 이해에서 벗어나 선교적 고난 이해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각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들을 중심으로 비자발적 철수를 한 선교사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선교지의 외적 요인에 의해서 철수하게 되었다. 이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대한 반응은 한국교회가 선교사의 고난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

45) Sunquist, Scott, op, cit, 338.

46) 박영식, op, cit, 288.

47) Krim, 『현대 선교 17, 선교사 멤버케어』 (서울: 한국선교연구원, 2014), 136.

부분의 한국교회는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들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방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사는 심리적인 고통까지 더해져 이중적인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러한 선교사들을 돌보는 일 또한 선교 사역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인지해야 함과 동시에 선교와 고난의 출구전략 차원에서 선교사들을 향한 지속적인 돌봄⁴⁸⁾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이 실천을 위한 주제, 즉 선교와 고난이라는 논지를 앞에 두고 그 긴장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선교 신학적 주제는 ‘환대’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가 선교 현장에서 고난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환대함으로써 그들이 직면한 고난의 아픔을 줄일 수 있다. 여기서 필자가 언급하는 환대는 아래 인용문에서 지적하는 한계성을 뛰어넘는 환대를 의미한다. 현상학적으로 보이는 환대에 대해 디나반두 만찰라(Deenabandhu Manchala)는 ‘환대’와 ‘포용’ 용어를 해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용어들은 권력 개념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환대는 손님과 주인을 포함한다. …이 표현에서, 주인은 환대를 제공하는 권력과 특권을 갖고 있다. …환대의 방식과 정도는 종종 손님의 사회적 정체성과 위치에 기초한다. …그와 비슷하게, ‘포용’ 역시 ‘규범적/규범’ 개념과 규범적 공간 속으로 외부인을 초청하는 ‘내부인’을 뜻하는 ‘내부인/외부인’이라는 이원적 개념을 함축한다.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포함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근원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가?” 그러므로, “정의 없는 환대는 억압적이고 비인간적이다. 비슷하게, 환대 없는 포용은 자선에 불과하다.”⁴⁹⁾

따라서 한국교회는 ‘고난과 선교’의 상관관계성 가운데 존재하는 선교사들을 향한 참된 ‘환대’⁵⁰⁾를 실천해야 한다.

VII. 나가는 말

선교사의 삶과 사역은 최전방에서 싸우는 병사의 모습에 비유할 수 있다. 전쟁의 상처는 모두에게 남기 마련이지만, 전투 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은 병사들과 그 가족들은 일평생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마찬가지로 선교 현장에서 생명을 담보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아픔과 고통은 선교에 대한 학문적 이론이나 단기간의 관찰만으로는 결코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⁵¹⁾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받는 이유가 분명히 밝혀지면,

48) 인간 돌봄이란 인간의 내적인 통합이 깨어진 인간의 불 건강과 고통이라는 현존재의 상황 속에서 인간 내부의 자아의 통합과 조화의 감각을 회복시키면서 자기 인식, 자기 통제, 자기 치유에 대한 감각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조혜경, “칼빈의 교회론이 돌봄(Caring)개념에 주는 선교적 함의”, 『선교신학』 Vol. 53 (2019), 218.]

49) Kenneth R. Ross 외 3인, op. cit, 481-482.

50) 이러한 환대와 관련하여 직면한 context는 바로 난민이다. 이병수는 “고통 가운데 여 있는 난민에게 이 환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한다.[이병수, “지구촌과 난민: 한국사회와 교회의 역할”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 12, No.1 (2019)] 한국교회는 레티 M.러셀(Letty M. Russell)이 『공정한 환대』의 책에서 환대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낯선 이들을 받아들여주는 하나님의 환영”[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 God's welcome in a world of difference*, 여금현 역, 『공정한 환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 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비자발적으로 추방된 선교사들의 고난을 함께 하나님의 환대로 맞이해야 한다.

그 목적이 더욱 쉽게 인식될 수 있다.

선교사가 타 문화권 선교지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고난을 긍정적으로 반응해 가는 자세는 고난의 내적, 외적 요인에 대한 선교 신학적 응답을 찾아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대속을 위한 존재로 자신을 이해하신 것처럼, 선교사도 선교와 고난의 연관성을 타자를 위해 존재한 그리스도의 삶의 관점 속에서 해석한다면, 선교지에서의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며, 복음이 현지인에게 흘러감으로써 선교사 자신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감을 발견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오는 영광…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또한 (일시적인) 고난을 통하여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가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⁵²⁾ 사도 바울도 이 부름에 응답하여 자신의 믿음의 길을 달려왔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 7-8).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한다. 그의 말처럼, 선교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타 문화권인 선교 현장이 생존을 위한 투쟁의 장소가 아니고, 고난의 굴레에 둘러싸인 장소가 아니라, 향유하는 삶, 즉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즐기는 장소가 된다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타 문화권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위험, 고독, 두려움 등과는 상관없이 그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주님의 사랑을 깊이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박영식. 『신정론의 물음과 신학적 답변 “고난과 하나님의 전능”』. 서울: 동연, 2012.
조인형. 『로마의 카타콤(기독교 박해와 승리의 역사)』. 서울: 하늘양식, 2013.
발퍼 카스퍼 외. 『순교의 신학적 고찰 “순교자-진리와 자유의 증인: 순교 신학에 관한 고찰”』. 서울: 도서출판 형제애, 2013.
전호진. 『기독교 박해시대』. 서울: 선교횃불, 2018.
Krim. 『현대 선교 17, 선교사 멤버케어』. 서울: 한국선교연구원, 2014.
- Bonk, J. Jonathan. 외 37인, *Family Accountability in Missions*. 두란노, 『선교사 가정에 대한 책무』 (서울: 두란노, 2013), 271-272.
Bosch, J. David. *Transforming Mission*. 김병길·장훈태 공역. 『변화하고 있는 선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Clinton, Robert J. *The Making of a Leader*. 이순정 역. 『영적 지도자 만들기』.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3.
Kane, J. Herbert. *A Concise History of the Christian World Mission*. 박광철 역. 『기독교

51) 김종성, 『하나님의 선교사 A to Z』 (서울: 두란노, 2014), 449.

52) Sunquist, Scott, op, cit, 15.

- 교세계선교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 King, Marie G. *Fox's Book of Martyrs*. 양은순 역. 『기독교 순교사화』.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7.
- Long, G. Thomas. *What Shall We Say? Evil, Suffering, and Crisis of Faith*. 장혜영 역. 『고통과 씨름하다. “악, 고난, 신앙의 위기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 Macdonald, Gordon. *Ordering Your Private World*. 홍화옥 역.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서울: Ivp, 2003.
- Muncaster, Ralph O. *Why Dose God Allow Suffering?*. 이근형 역.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실까?』. 서울: 쿤란출판사, 2005.
- Neil, Stephen.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웅치모·이만규 역. 『기독교 선교사』. 서울: 성광문화사, 1993.
- Ross, Kenneth R. 외 3인, *Ecumenical Missiology -Changing Landscapes and New Conceptions of Mission*. 한국 에큐메니칼학회 역. 『에큐메니칼 선교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8.
- Russell, Letty M. *Just hospitality : God's welcome in a world of difference*. 여금현 역. 『공정한 환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
- Selye, Hans. *Stress Without Distress*. 김만풍 역. 『현대 기독교 상담시리즈 9-스트레스와 안정』. 서울: 두란노, 1997.
- Sunquist, Scott. *Understanding Christian Mission*. 이용원·정승현 역. 『기독교선교의 이해-고난과 영광에의 참여』.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5.
- Tournier, Paul. *Creative suffering*. 김기복 역. 『창조적 고통』. 서울: 전망사, 1986.
- Winter, Ralph D. and Hawthorne, Steven C.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정옥배 외 3인 역. 『퍼스펙티브스1』. 서울: 예수전도단, 2010.
- Wurmbrand, Richard. *Tortured for Christ*. 조주향 역.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서울: 서울유에스에이, 2008.
- Bergman, Susan. *Martyrs- "Contemporary Writers on Modern Lives of Faith"*.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96.
- Neil, Stephen *Creative Tension*, London: Edinburgh House Press, 1959.
- 김남석. “고통에 대한 선교신학적 접근”. 『선교신학』 Vol 46. (2017): 15-46.
- 이병수. “지구촌과 난민: 한국사회와 교회의 역할”.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 12, No.1 (2019), 119-167.
- 조혜경. “칼빈의 교회론이 돌봄(Caring)개념에 주는 선교적 함의”. 『선교신학』 Vol. 53 (2019), 212-236.
- 장은경. “섬김의 리더십으로 동반자 선교를 추구해 가는 선교 동역자(Mission-Coworker)” 『선교타임즈』 2017. 4월. 13-17.
-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A%B3%A0%EB%82%9C&range=all> (2019년 10월 15일 검색)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A%B3%A0%ED%86%B5&range=all> (2019년 10월 15일 검색)

‘고난과 고뇌’ 『기독교대백과사전』. 제1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7.

Abstract

Missiological Understanding of “Mission and Suffering”

Since the release of the work (*An Enquiry into the Obligations of Christians to Use Means for the Conversion of the Heathens*) by William Carey in 1792, numerous Christians around the world have dedicated themselves as missionaries and persevered through challenges to spread the Gospel around the world. Even today, missional life of missionaries working around the world is full of hardship. Hence, it is worth exploring the question, *why is this the case?*

When I first received an invitation to write a manuscript on *mission and suffering*, I thought that there would be quite a number of articles on this topic, mainly because of thinking that mission and hardship could hardly be separated. However, in reality, there were not that many studies published by missionaries or those in the field of missions. It could be argued that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such proposition has been widely accepted. To address this gap in the field, I propose to explore *mission* and *suffering* in this article by focusing on some cases of challenges that I, as a missionary, have experienced in firsthand and that other missionaries in diverse cross-cultural mission fields have encountered. I will examine *mission* and *suffering* through the following key questions. First, *what are the meanings and significance of mission and suffering?* Second, *how should suffering be interpreted and conceptualized from a missiological perspective?* Third, *what can missionaries who encounter suffering do as a missiological response?* Fourth, *how do Korean churches react to missiological responsibilities on missional suffering?*

Missional suffering refers to the entirety of suffering and pain that evolves from evangelization. Therefore, the author defines missional suffering as hardships encountered in mission fields when missionaries dedicate to *Missio Dei*. This suffering could be perceived as an entirety of a missionary's life and ministry. It is possible to propose that missional suffering results from factors that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intrinsic and extrinsic ones. Intrinsic factors that lead to suffering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one's own private world, challenges related

to relationships among family members, and tensions and among missionaries, along with conflicts between mission agencies, supporting church, and/or mission organizations. Compared to missionaries from Western cultures, generally Korean missionaries have a tendency to endure hardship without openly sharing it with others. This tendency could result from Korean culture, and such inclination often leads to greater challenges and hardships.

External factors also vary widely, depending on the region that missionaries work. Missionaries who work in Muslim regions, frontier mission areas, and/or other Socialistic countries experience spiritual pressure or weariness from the possibility of their identities as missionaries being exposed. On the other hand, some key challenges that missionaries in Latin American countries experience include threats and other security issues.

If missionaries fully comprehend missional sufferings and recognize throughout their lifetime that they have a special calling, they can rejoice in their walk with Jesus while serving in mission fields in which they had experience hardship. Furthermore, interpretation of missional suffering should be from a missional perspective and acknowledge current existing gap between *missional suffering* and *missiological suffering*. Missional suffering of the missionaries who work in cross-cultural countries should be seen from a perspective of *Missio Dei* that bears God's will. A better conceptualization of missional suffering from a missiological perspective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mission and suffering from a creative tension. Such creative tension that exists between mission and suffering should be interpreted in reference to the incarnated life of Jesus Christ.

Missionaries are "*too valuable to be lost.*" Even to this very moment, they continue to suffer from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cause sufferings and, in extreme cases, decide to dropout. Korean churches, however, are not cognizant enough of such crisis. Consequently, missionaries experience *double suffering* due to mental and emotional struggles. Korean churches should sincerely welcome missionaries, who continue their ministry in the midst of hardships, and ultimately diminish the level of suffering that these missionaries face.

If the relationship between mission and suffering is interpreted from a perspective of the life of Jesus Christ who lived for others, sufferings in mission fields would not be considered as hardships anymore. Furthermore, missionaries themselves can move forward to a place of the glory of God as the Gospel flows to local people. The Apostle Paul also confesses in Romans 8:18,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s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Like his confession, the cross-cultural mission fields are not battlegrounds for survival or places replete of hardships, but rather, such missional striving leads to delightful life for Christians who fully live out the Gospel and share it with others. By doing so, they can deeply experience God's presence,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and unending love of God regardless of hardships, loneliness, and fear that they encounter in cross-cultural mission fields.

Keywords: 고난, 선교적 고난, 하나님의 영광, 환대
(suffering, missional suffering, glory of God, hospitality)